

# 선미촌 사례, 인간도시 정책으로 소개

〈문화재생〉

### 김승수 전주시장,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인권의 공간으로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소개됐다.

앞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지난 16일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주요 싱크탱크와 정책수립·집행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페스티벌'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경기도 수원시 일산 킨텍스 더함파크에서 진행된 '2017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 성매매집결지라는 오명을 딛고 문화재생을 통해 최근 인권·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선미촌 문화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과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등이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도시들이 인간도시를 만든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다.

이날 김 시장은 △선미촌, 새로운 꿈을 꾸다 △시민과 함께 바꾸어 가다 △예술과 문화에서 사람의 도시 미래를 꿈꾼다 등 3개의 파트로 나눈 발표를 통해 성매매집결지를 공권력 동원한 전면개발 방식이 아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기능전환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선미촌 문화재생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선미촌 정비 민간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 △시티가든 조성 등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성매매 집결지에 전국 최



추석맞이 사랑나눔 알뜰장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가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추석맞이 사랑나눔 알뜰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석 음식 준비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과일, 건어물 및 선물용 추석 상품 등 20여 가지의 우리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초 현장시청 운영 등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관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지난 1950년대 형성돼 오랜 기간 여성인권이 침해된 폭력적인 공간을 문화예술을 통해 치유와 재생의 손길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충남 아산시와 광주광역시 등 전주시 우수사례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김 시장은 "구도심에 슬럼화된 형태로 형성돼 지난 60여 년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공간이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

받았던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민간과 행정의 협력으로 문화·예술·인권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전주시는 문화예술의 힘으로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주민들의 삶, 시민공방촌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실경영 논란'

### 시, 한도총과 계약 유지 방침... 공과금 체납·일방적 휴업 등 각종 문제 불거져

전주시가 부실운영으로 술한 지직을 받아온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위탁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복지관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하 한노총)가 지난 12년 동안 이를 무상으로 맡아 운영하면서 공과금 체납, 일방적 휴업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5월 특별감사에 나서고 운영 주체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위탁 주체인 한노

총의 정상화 방안만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운영방침'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한노총과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노총이 제시한 복지관내 직원 13명 중 3명 감축과 시설보수를 통해 공공요금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복지관 요금을 10% 정도 인

상하고, 7,300만원의 미납수도요금 납부와 현재 입주해 있는 이발소나 매점, 세신업체 등 7개 업체의 임대보증금도 총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재무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6급 공무원 1명을 복지관에 파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체납 미해결 등 문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탁해지할 경우 장기 회원의 회비와 임대보증금 1억1,800만원에 대한 보전방법이 없는 등 큰 피해가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수익금은 전액 체납 공과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정례회 등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 어획량 속인 중국어선 2척 적발

중국어선의 '뜸수' 해경의 정밀 검색으로 적발

해경이 풍어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인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4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허위 기재) 혐의로 각각 205급, 159급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A호(205, 中 운영선적, 승선8명, 선장 우(吳)씨 48세)는 9월 1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실제 약 59t의 고기를 잡았

지만 별도 장부를 만들어 한국 측에 통보되는 조업일지에는 12만 기재하는 수법으로 46t의 어획량을 속였다.

또 다른 중국어선 B호(159, 中 운영선적, 승선8명, 선장 우(吳)씨 46세)의 경우 한·중 어업협정 해상 진입 통보도 없이 잡은 고기를 무허가 운반선에 남겨주면서 이 사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1시께 각각 2,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를 하면서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9척으로 담보금은 9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저신용자 대상 전문 대출사기 일당 검거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문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4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일당 4명과 허위 대출 신청자 37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허위대출자 37명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38억원 상당을 대출받고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니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범에 끌어들었다.

이후 허위의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 등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해 10~1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의자들이 신용카드를 소지한데 6~7개월 동안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신용등급을 높였다.

신용등급이 높아진 뒤 카드론대출, 금융권대출 등에서 일시 대출을 신청해 개인당 1억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자의 휴대폰과 통장,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대출 작업 책임인 피의자 C(42)씨는 서류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중 10%를 작업비용으로 챙겼다.

또한 이들은 대출 작업정책, 대출자 모집책, 위장 취업책, 은행 작업책, 신용카드 작업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민 기자

## 최은희 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 '특정후보 지지 대가 약속' 혐의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 전북도의원에게 항소심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 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서 최 의원과 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에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A후보를 지지해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면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